

손잡이를 따라붙은 계단을 오르고, 벽과 바닥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육면체의 상하운동으로 층간을 이동하는 일. 교통수단으로 다리를 건너고, 의자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고, 문과 창문을 여닫는 일. 너무나도 촘촘하게 짜여진 도시의 환경은 인간이 고안한 일상의 시스템으로, 주로 생활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구축된 것들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에 순응하며 눈앞에 놓인 물리적 설계를 따라 신체적인 반응을 결정한다. 이는 모두 이용철이 '현실의 기하학'이라고 칭하는 것들로, 3차원의 공간에서 특정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사물과 제한된 사과의 방향을 유도하는 비물질적인 상황 또는 인터페이스를 모두 포괄한다. 그는 주로 자신이 경험하는 도시의 환경적 특징을 의심하고 제시된 구조가 어떻게 인간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지 살핀다. 이미 존재하는 규율에 대한 예민한 지각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무감각을 일깨우려는 구체적인 시도로 이어진다.

작가는 마주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조정과 개입, 재배열의 원칙을 부여하며 모종의 틀에 고정되어 있던 인식을 일시적으로 해방시킨다. 가령 부서진 색면들로 연결된 <Color-field Relief>(2018)는 그가 벽지의 문양, 웹상에서 얻은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단순화하고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현실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 작가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여과되고 재배치되며 새로운 기하학적 형질을 획득한다. 또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이 부조 작품은 완성된 뒤에도 여러 개별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오브제로서 존재한다.

영상 <안무; 드로잉과 설계 사이>(2018)에서는 작가의 시점이 제3자의 관점으로 연이어 확장된다. 작가는 안무가에게 실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를 언어적, 비언어적 텍스트로 동시에 변환해보기를 제안한다. 한 건물의 안과 밖에서 그려지는 즉흥적인 동작들은 인공물의 설계 목적에 순응하며 흐르는 대신 때로는 그것과 가까워지다 이내 다시 멀어지기를 계속한다. 또한 작가가 선택한 흑백의 이미지들과 겹쳐지는 목소리는 신체와 장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찰나를 함축적인 단어들로 읽어내며 정지된 물리적 토대를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시켜 나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시장 한편에 놓인 드로잉들 역시 그가 살아가는 현실에 편재하는 무감각의 풍경에 대한 포착이며, 그 틈에서 작가의 일관된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것은 본인이 몸담는 여러 구조들의 한정된 의미 체계를 와해시키는 동시에, 이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발현시키려는 행위의 지속이다. 결국 우리가 이용철의 주변에서 발견하는 것들은 그가 현재를 비틀어 보려는 여러 시도의 흔적들이며, 나열된 개별의 단서들은 결국 사과의 능동성을 호출하는 신호임을 알게 된다.